

2022년 최고의 영상보도 7편,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핵폐기물과 친환경에너지, 지역문화유산 영상보도한 영상기자들 수상...대상 수상작은 없어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을 열었다. 지역뉴스 특종단독 보도부문은 KBS춘천 임강수·이장주 기자의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가, 지역뉴스 탐사기획 보도부문은 KBS광주 이성현 기자의 <햇빛·바람에 멍들다-재생에너지의 명암>이, 환경 보도부문은 MBC 장영근 기자의 <물이 밀려온다-해수면 상승 기후위기 연속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보도특집 다큐부문에는 MBC강원영동 김창조 기자의 <여음, 아직 남겨진 소리>이, 멀티보도부문에는 KNN 전재현 기자의 <위대한 유산 100경>이, '새로운시선' 부문에는 MBC충북 김병수·신석호 기자의 <UHD 영상뉴스 - 미래유산을 찾아서>가 각각 선정됐다. 국제·통일보도부문은 KBS 이재섭·류재현 기자의 <시사기획 창 - 전쟁과 음악>이 차지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영상기자상 서태경 심사위원장은 "지난 한 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중에 영상기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했던 부분

이 많았는데도 문제의 중심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급박하게 변하는 현장에서 시간, 공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 현장의 영상 기록들은 훗날 역사가 된다는 것을 더욱 고만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기여, 협회원 역량강화사업 공로자에게 영예상 공로상 수여 공로상은 5.18 공로기념재단 '5.18 글로벌센터' 전운철 전 협회 부회장, 김영미 분장지역 전문PD, 김상준 독립PD가 힌츠페터국제보도상과 관련한 공로로 수상이 결정됐고, 영상기자 역량강화 사업 공로자로 이종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팀 사원과 이대환 한국전파진흥협회 연구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과 현장 보급, 정착사업을 벌이고,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제정을 통해, 영상저널리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25~26대 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원상 전 회장이 협회 창립이후 두 번째 영예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굿뉴스메이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들이 협회 발전을기원하며 케익을 지르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커상은 2022 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돌아갔다. 상은 대한축구협회 조병득 부회장과 송기봉 홍보국장이 대리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언론 자유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요즘이지만, 언론자유의 지평을 넓히는데 여러분과 함

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28대 회장 취임식도 열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 28대 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협회는 지난 1월30일 전국운영위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직위원 48명 가운데 46명이 투표에 참석, 44명의 찬성으로 나준영 후보를 2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반대 2명, 기권 2명). 27대 회장으로 활동해 온 나 당선자의 임기는 2023년 3월1

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2년이다. 나 당선자는 "앞으로 2년은 '나와 가까운 협회', '내 편이 되어주는 협회'라는 구호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온택트 소통 체계 강화 ▲풀 취재, 포토라인 취재 관련 운영 규칙 개정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서울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 등을 약속했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

<부문별 수상자>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KBS 임강수, 이장주 기자
<KBS뉴스9: [단독]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KBS 광주 이성현 기자
<KBS 시사기획 '창': 햇빛·바람에 멍들다 - 재생에너지의 명암>

보도특집 다큐부문
△MBC 강원영동 김창조 기자
<MBC특집다큐멘터리: 여음(餘音)아직, 남겨진 소리>

멀티보도부문
△KNN 전재현 기자
<KNN풍경멘터리: 위대한 유산 100경>

'새로운시선' 부문
△MBC충북 김병수, 신석호 기자
<MBC충북뉴스데스크: UHD 영상뉴스 '미래유산을 찾아서'>

국제·통일보도부문
△KBS 이재섭, 류재현 기자
<KBS 시사기획 창: <전쟁과 음악>

환경보도부문
△MBC 장영근 기자
<MBC뉴스데스크 [물이 밀려온다]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 연속보도>

<공로상>
- 1·2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기여자-
△5·18기념재단 '5.18 글로벌센터'
△전운철 前광주전남지부장
△김영미 분장지역 전문PD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
△김상준 독립PD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

- 협회원 역량강화사업 기여자-
△이종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팀 사원
△이대환 한국전파진흥협회 연구원

<영예상>
△한원상 (YTN 영상기자)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 보급 사업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제정활동

협회, 풀(Pool)취재·포토라인 준칙,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한다

1990년대 취재 환경서 제정된 각종준칙, 미디어 환경변화맞춰 개정 필요, 공인취재, 참사보도 등 새로운 현안이슈보강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회원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풀취재, 포토라인 취재와 관련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출입처와 전국의 취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풀취재·포토라인 취재 준칙은 1990년대 중

반 제정됐다. 그러나 취재보도 환경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종합편성체널과 뉴스전문채널 등 뉴스 취재하는 매체가 증가했고, 뉴스제작의 중심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며 실시간 뉴스중계 및 현장송출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풀취재·포토라인 준칙들로 영상기자

들은 출입처와 공동취재현장에서 영상취재와 라이브송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협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매체 간 불필요한 취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풀취재와 포토라인 취재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나준영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8대 회장 취임식에서 "각 지

회와 지역지부 대표들로 '풀 취재·포토라인준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정된 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벌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나 회장은 먼저 수도권 회원사 보도영상담당 최고책임자 및 각 지회·지역지부장과의 소통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3월 말부

터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20년 초에 개정된 '영상보도가이드라인'도 현장의 필요성에 맞게 보강할 계획이다. 협회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회원은 물론 영상 편집자, AD 등 비회원에게도 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협회가 주관하는 영상기자상 심사에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중요 심사기준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인보도, 참사보도, 재연보도, 영상자료 사용 등 새로운 영

상보도 이슈가 등장하면서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추진되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최초 제정 작업 때와 같이 영상기자, 언론학자, 언론법 전문 법조인 등이 참여해 현장의 이슈를 취합, 토론과 연구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하

고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영상기자들의 초상권 인식 조사 논문에 따르면, 현장 영상기자들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재개정 이후 이에 대한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Jeju 제주특별자치도

나 ♥ 제주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늘 너무 많은 걸 받고 돌아오는 제주!
제주야, 이제 내 고향하자!!

LOVING JEJU GIVING BACK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제 108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전통, 도시, 환경, 청년문제를 다룬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일기



서태경 심사위원장

춘석이 분분한데 임춘 우수가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밀리서 봄이 오고 있는 2023년 1월말, 제108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도 특집 다큐 부문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창조 기자의 '여름 아지, 남겨진 소리'가 수상했습니다. 굵이 굵이 산골짜기 산간 마을 어르신들의 골골진 삶이 담긴 강원도 정선 아리랑. 잊혀져가는 그 노랫가락을 찾아서 아름다운 영상과 어우러지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노래에 담긴 정서

와 영상의 앙상블이 뛰어나고 지역의 역사와 그 속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의미 있는 기록물입니다.

새로운 시선 부문에서는 JTBC 이주원 기자의 '누구나 깨끗한 집... 윤 정부 주거 사다리 약속 지켜졌나'가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을 받으며 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거문제라는 자칫 지루하게 흐를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영상 기법과 세련된 편집을 통해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노력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샀습니다.

환경 보도부문에서 KBS부산 이한범, 장준영 기자가 출품한 KBS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와 MBC 장영근 기자의 '물어 밀려온다.' 시리즈를 공동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환경 부문의 공동 수상작 '아포리아'는 핵폐기물 처리에 관해 우리가 몰랐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국내외를 넘나든 취재도 탄탄했으며, 특히, '탈원전' 이슈가 뜨거워 오즈음,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핵폐기물처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한 작품이었습니다.

'물이 밀려온다.' 시리즈 또한 인류가 맞닥뜨린 전 세계적인 핫 이슈가 주목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해수면 상승 문제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더불어, 기후 위기를 취재진이 직접 체험하며 영상으로 극대화 시켜 보여줬다는 평이였습니다.

멀티 보도 부문입니다. KBS청주의 강사완 기자가 취재한 '지방과 청년, 회사 밖으로 출근'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지역 소멸의 문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쾌한 영상과 음악으로 다소 무거운 수 있는 내용을 '유니크'하게 표현해, 좋은 심사평을 받았습니.

덧붙여 아직도 재난에 고통 받고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열악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영상 기자들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선' 부문>

JTBC뉴스 "누구나 깨끗한 집"...윤 정부 '주거 사다리' 약속 지켜졌나



JTBC 이주원

<"누구나 깨끗한 집"...윤 정부 '주거 사다리' 약속 지켜졌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후보자 시절 국정 과제들

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단골 아이템'으로 표현 하였던 것들 거론되는 주거 약자 뉴스.

저희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장 스케치, 기자 스탠드업, 현장 CG 등 새로운 시각으로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 많은 고민을 하여도 현장 상황은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기존의 ENG 카메라 6mm 소형캠을 사용한 취재 방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장비들을 고민했습니다. 인스타360(액션캠) 등의 촬영 장비들을 활용

하여 좁은 쪽방촌이 만든 공간의 제약과 기존 취재장비사용의 한계를 보완해 사전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을 영상화해 나갔습니다. 취재를 해 나갈수록 고됐지만 취재기자들과 좋은 취재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과정들이 '새로운 시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 한 편으로 우리의 단골아이템인 '주거약자'가 쉽게 사라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더 가까이서 꾸준히 보도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한 컷, 한 컷의 영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 [국민 안전], [코로나 손실 보상], [주거 복지 문제]의 세 가지 과제들을 차례로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중 주거 복지 문제를 다루는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취재팀은 쪽방촌과 반지하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구성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쪽방촌과 반지하 주택은 더우면 더울 때마다 추우면 추울 때마다 찾게 되는 기자들에게 흔한 '단골 아이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으로 불리는 곳들이죠.

저 역시도 반복된 업무들에 무뎠던 듯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던 중,아이템에 대해 논의하게 된 후배 기자는 고맙고 다정하게도 고민과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논의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들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뉴스는



국회 시정연설 10월 25일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제109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뜻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공모시상부분(정회원에게 한함)

- ▲뉴스특종단독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시선' 부문 ▲인권-노동보도부문 ▲국제-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스포츠보도부문

■출품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제출기간

2022년 3월 1일(수) ~ 3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환경보도 부문>

KBS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

KBS부산 이한범(글), 장준영



처음 특집을 시작하기로 하고 많은 걱정이 들었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등 지루하고 어려운 주제는 영상 기자로서 소위, '그림 안 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 어렵고 지루한 다큐멘터리를 2편이나 볼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일단 원전 관련 다큐들과 뉴스를 보며 공부를 했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머뭇속에서 다큐를 구상해 나갔다.

제작을 준비하며 처음부터 4K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에서 4K 화질의 영상들을 접하기 쉬운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그동안 데일리 뉴스만 제작하며 4K와는 거리가 먼 제작환경에 있었고, 4K 기반 장비와 워크플로우 편집 등 지식의 '전무'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유튜브를 뒤져 4K제작에 대해 공부하며 '땀방에 헤딩' 식으로 준비했다.

촬영이 진행되는 중에 정전병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모든 원전의 내부촬영을 거절했다는 소식이였다.

'아이템의 주인공인 '사용 후 핵연료'를 실제로 볼 수도 없고 촬영할 수도 없으니... '쉽지 않은 제작의 연속이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 진행된 일이었다. 과거 자료들이 필요했다. 회사의 아카이브



현재 5개 터널은 완공했고 앞으로 100년 동안 더 많은 터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를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생생한 과거의 자료들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자료는 현재의 어떤 그림보다도 힘이 있었다. 거기에 장준영 기자와 함께 다녀온 '핀란드', '스웨덴' 등의 해외 출장을 통해, 취재한 영상들이 더해져 무사히 2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사용 후 핵연료'와 10만년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25기.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많은 원전을 가동하며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을 이뤘다. 하지만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핵 쓰레기 '사용 후 핵연료'가 필연적으로 무려 2만 톤이 쌓여있다.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10만 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우리는 원전을 통해 값싼 가격의 전기를 얻고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는 진영논리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취재 중 들은 '외관도 멋지고 내부도 멋진 아파트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 화장실을 짓지 않았다.'는 어느 취재원의

표현이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었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이 없는 집',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것은 찬반으로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한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포리아'이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구 처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9차례에 걸친 부지 확보 시도가 있었다. 번번이 유혈 충돌 사태까지 발생하며 모두 실패했다. 원전 운영 4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영구처분장 건립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재 중 만난 스웨덴 핵폐기물국가위원회 의장 칼 라인홀트 박사는 '원전의 혜택을 누려 온 세대가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40년의 긴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초의 영구처분장을 건설했다. 우리의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운영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도 원전은 가동 중이고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은 쌓여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를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108회 이달의 기자상 멀티보도부문>

KBS청주 특집 <지방과 청년 '회사 밖으로 출근'>

KBS청주 강사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지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회가 없었던 참나, 나에게 첫 특집 프로그램 제작의 기회가 주어졌다. 특집을 제작해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선배들이 제작했던 특집들을 하나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또, 선배들을 찾아가 어떻게 촬영을 하였는지,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질문하고 다시 영상을 찾아보았다. 막상 특집제작의 시간이 다가갈수록 마음 한 편에 두려움이 생겼다.

'테일링 리포트를 취재했던 내가 한 시간 가량의 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카메라는 어떤 것을 써야 좋을까?' 등등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런 고민의 연속 중에 첫 기획 회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최대한 취재기자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았다. 또, 어떤 설비가 이루어져있고 어떤 현장을 가서 무엇을 찍을지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약 한 달 동안의 촬영은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았다. 기존 리포트 제작과 다르게 하나하나의 컷에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촬영을 하고 원본을 보면서 자책도 많이 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특집 프로그램의 성향을 파악하고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방과 청년의 문제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지방소멸위기'는 언론보도에 자주 다뤄져 왔다. 우리 '지방소멸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원격근무'를 대안으로 찾아보고자 했다.

지방과 원격근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원격근무'라는 주제의 성격상 굉장히 정적인 그림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집에서 근무하는 모습, 업무 시간 외의 개인적인 활동 모습, 전문가 인터뷰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타임랩스' 촬영, 다양한 렌즈의 활용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취재한 지역의 지명을 어떻게 CG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보여줄 통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회의 끝에 레고인형을 이용한 이미지들과 통계 이미지를 조화시켜 영상의 정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최대한 줄여 보려고 노력을 했다.

취재 후에는 원본들을 모니터링하여,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다시 가서 이미지 컷들을 추가해 촬영했다. 이렇게 약 3~4개월 동안의 취재가 끝나고 세상에 나온 나의 첫 특집은 시청률 6.3%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신입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내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 '방송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다.', '취재기자, 작가, CG, 촬영보조, 방송차량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에 만나게 될 나의 또 다른 특집 프로그램이 더 더욱 기대된다.

“영상기자들, 초상권 침해 규정 절반만 인지”

방송사, 협회 차원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 강화 필요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영상기자의 초상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한 논문서
 10년차 미만 기자들의 초상권 관련 인식 수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영상취재 활동기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일반 인식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인식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인식	
	M	SD	M	SD	M	SD
활동기간						
10년이하	13.57	2.11	4.83	1.34	1.85	0.90
11~20년	11.83	2.27	4.00	1.34	1.20	0.64
21년이상	12.16	2.06	4.03	1.38	1.10	0.61
평균	12.57	2.25	4.31	1.40	1.39	0.81
	F=9.55***		F=6.30**		F=16.59***	

n.s.=not significant, * p<.01, ** p<.01, *** p<.001

* 심미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2022, 언론중재위원회 P76 인용

2018년 11월,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영상기자들의 고민을 담은 결과였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을 담아 1차 개정판을 내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보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영상기자와 영상 편집자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5년, 과연 영상기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알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을까.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미선 교수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송사 영상취재 기자들의 인식

을 조사한 결과, 기자들은 23개의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13개 사례만 인지하고 있었다(인지를 54.7%). 특히, 경력이 10년 미만인 젊은 기자들은 초상권 침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11년~20년차 기자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해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심 교수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23개를 유형별로 분류해 협회 회원인 153명의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정도를 설문조사를 실시,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논문을 내었다. 이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3호에 수록됐다.

논문에 따르면, 영상기자 10명 중 7명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 사본 개인의 초상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또, 재난 및 사고 현장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일반인이나 범죄자,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0명 중 9명 이상(92%)은 초상권 침해 예방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실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자 스스로 느끼는 인식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 규정에 대한 인지는 기자들의 경력에 따라 달랐다. 취재 활동 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11년~20년차 기자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교수는 “영상취재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명백히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방송사나 협회 차원에서 영상취재기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영속 기자 cat1006@naver.com

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장 취임사

“함께 하는 협회, 우리의 저널리즘,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뉴스현장 한가운데서 영상기자들이 취재한 영상 한 컷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담긴 진실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영상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노력이 더욱 커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명령에 더욱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2년간 27대 회장으로서 전국의 영상기자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취재역량과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직접 듣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소속사와 지역을 넘어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의 2년은 제가 내세운 ‘나와 가까운 협회, 내 편이 되어 주는 협회’라는 선거구호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2년이 될 것입니다.



니준영 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장

온택트소통체계, 온오프라인 회원교류강화
 지난 2년간 구축해 온 온택트(On-Tact) 소통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협회의 회의, 월별연수와 교육을 온라인기반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회원들의 연대감과 고민들을 오프라인에서 강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pool)취재, 포드라인준칙 개정
 우리 협회의 활동과 회원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풀취재, 포드라인 취재와 관련해 개선, 개정작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출입처와 전국의 취재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풀취재와 포드라인 취재는 1990년대 중반의 미디어환경, 취재환경에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디어환경과 취재보도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출입처와 공동취재현장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와 지부의 대표들이 모여 2020년대의 미디어환경, 취재보도환경을 충실히 반영한 풀취재준칙, 포드라인취재준칙을 개정해, 취재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취재경쟁을 막는 표준원칙들을 만들어/ 영상취재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개정 및 교육, 현장정착 노력 강화
 우리의 관행적 취재방식에 의해 영상에 노출된 개인이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현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의 중심에 선 취재원에게 우리 언론의 집중된 의혹과 문제제기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혀 관계없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의 영상보도가 더욱 깊은 기자적 고민과 성찰 속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우리협회가 제정하고 현장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더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이 영상기자는 물론이고 영상을 활용하고 제작하는 현업방송인과 시민, 학생들의 표준준칙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츠페터국제보도상>의 발전 통해 영상기자와영상저널리즘위상강화
 4년간의 제정 노력을 통해 지난 2021년 첫발을 내딛 한츠페터국제보도상은 지난 2년간 1, 2회 국제공모와 시상식행사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보도상이자 우리 영상기자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3회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상을 함께 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든든한 동지인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 상이 상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시민과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경험해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인과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단체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몇 년 내에 전 세계 영상보도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는 국제보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앞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활동참여 해 우리의 취재환경, 근무환경을 바꾸는 일
-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운동
 미디어교육의 장에 영상기자가 참여하고, 남북영상기자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영상을 통해 역할하는 남북영상기자교류사업의 추진 등 앞으로 2년간 우리 회원들과 만들어가고 싶은 협회활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재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들 회사 내부에서 바꾸고자 했던 것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격렬하게 토론했던 영상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협회활동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현실적 개선책을 만들어 현장을 바꿔봅시다. 협회활동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연대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방송사를 바꾸고, 우리의 취재제작환경,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변화, 그 노력과 대안들이 우리가 믿고 사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이야기 듣고, 뜻을 모아,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뉴스뷰>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인터뷰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은 내가 본 최고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영상저널리즘의 질 끌어올려...협회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한 컷에 진실을 보여 주는 영상의 힘, 영상기자들 우리 사회변화 중심 될 것



심미선 순천향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이 최고였다.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기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23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의 주제를 ‘영상기자의 초상권 침해’로 잡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년 동안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심 교수는 심사 때마다 협회가 제정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상황과 관련해 사례별로 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 관련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이해가 쉬웠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구를 시작할 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상권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경우를 많이 봤고, 클릭수를 유도에



▲<영상보도가이드라인>저자들이 참여한 2021년 협회온라인교육 장면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내는 언론도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협회 기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식 수준이 높았다.’는 게 심 교수의 평가다. 다만 심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아 초상권 침해 인식이 높을 줄 알았는데, 10년차 미만 기자들의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며 “요즘 사람들은 초상권이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받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선배 세대가 그런 정서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석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이 ‘영상기자상’ 심사에 적용되면서 가이드라인은 영상 저널리즘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몫을 했다.

심 교수는 “처음 심사를 맡았을 때와 최근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영상의 퀄리티, 영상기자들이 사회적 이슈를 담은 영상 문법이 좋아졌다.”며 “‘영상기자상’의 목적이 영상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지난 4년 동안 그 목적을 200%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작이 지역 언론 작품임을 들어 지역 언론의 성장과 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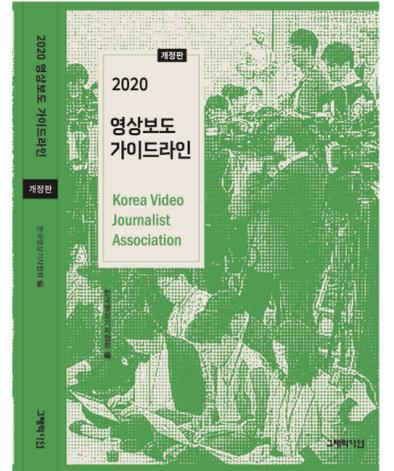
우크라이나전쟁, 1029침사보도 등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
 - 영상기자 스스로 핵심을 꿰뚫고 카메라에 본질을 담으려는 노력해야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속적인 교육 없이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심 교수의 생각이다.

심 교수는 “초상권 침해는 영상기자들이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 시대를 맞아 초상권 침해 소지도 커진 만큼 영상기자들에 대

해 취재 윤리와 초상권, 인권 보호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수”라며 “협회가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연수 사업으로 꾸준히 교육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에서 심 교수는 재난보도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컸던 부분에 주목했다.

심 교수는 “그림이 되니까 재난 현장의 참혹한 현장과 사람들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가이드라인으로 재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언론과 비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언론이 어디까지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2018년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은 2020년 개정판을 냈다.

심 교수는 “앞으로 비슷한 연구가 있을 때 내 논문이 바탕이 되어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영상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없는데, 협회랑 인연을 맺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 교수는 4년 동안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소회도 밝혔다. 특히 미얀마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들과 관련해 좀 더 깊이 있는 영상보도가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당시 심도있게 취재한 출판작이 한 편도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은 기록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정말 속상했고 심사위원들끼리 고민도 많았다.”며 “이 부분은 영상기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심 교수는 영상이 힘과 영상기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 교수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한 컷으로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가진 힘을 생각하면 앞으로 영상기자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저널리즘에서 영상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영상기자 스스로 핵심을 꿰뚫고 카메라에 본질을 담으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영속 기자 cat1006@naver.com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심사평>

영상으로 기록한 2022년, 치열했던 우리시대의 삶

지난 2022년의 가장 큰 국내 뉴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민주화 시위, 월드컵 등이 빅이슈였지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의문과 문제들을 가진 이태원 참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연재나처럼 작년 한 해도, 기쁘고 슬픈 사건들로 인해 웃고 울며 보낸 일 년이었습니다. 그 국내외 뉴스의 현장에서 영상기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했고, 그 영상들이 뉴스와 특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심사위원들은 지난해를 통틀어 각 부문 영상기자상의 주인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먼저 지역 뉴스 특종 단독부문에 춘천 KBS의 임강수, 이장주 기자가 출품한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KBS뉴스를 통해, 춘천 공지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죽음에 대한 첫 단독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취재팀은 물고기 폐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 그리고 정부 기관 검사 기준의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완성도 높게 후속보도 했습니다. 특히, 영상적인 부분에서 사진 발생 당시 신속하게 수중촬영, 드론을 이용해 집단 폐사한 물고기를 입체적으로 취재해 잘 보여 주었고 그 시각적 효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뉴스 탐사 기획 보도부문은 KBS광주, 이상현 기자의 '햇빛, 비탈에 머물다'·재생 에너지의 명망'이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시설로만 생각되었던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보여주면서 재생 에너지의 문제점과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구축과 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내의 취재를 통해 잘 보여 주었습니다.

보도 특집 다큐부문에서는 MBC강원영동의 김창조 기자가 출품한 '여름, 아직 남겨진 소리'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잊혀져가고 보존되어야 하는 교과서 속 민요로만 생각되었던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산간 지역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풀고, 매일매일 정겹고 애절한 소리들로 탄생하고 이어지는 과정을 섬세한 현장 취재를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상과 노래만으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기록해왔는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

멀티 보도부문은 KNN전재현 기자의 '위대한 유산 100경'이 수상하였습니다. 제작 기간만 3년.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된 시기, 한 사람의 영상기자가 애정과 집념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자연 유산을 찾아 100편의 미니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수려한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들에게 코로나19 시대의 사를 잠시 잊고, 아름다운 산하의 풍경을 감상하며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꿈꾸게 하는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새로운 시선 부분에서는 MBC충북의 김병수, 신석호 기자의 '미래 유산을 찾아서'를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잊



▲한국영상기자상 심사평 마친 2022년 영상기자상 심사위원과 협회직원을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주하 협회 사무장, 황성욱 MBC부장, 조영성 SBS부장, 방세준 KBS부장, 양희연 변호사, 손준수 JBC부장, 이경선 협회이사, 심미선 순천향대학교수, 나준영 회장, 서태경 심사위원장, 손영원 부산MBC국장, 최영일 한국외대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서유심사

혀져가는, 과거의 유산을 찾아 아름다운 영상 작품으로 만들었으며, 그 유산들이 가진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국제, 통일 보도부문에는 KBS이재섭, 류재현 기자의 '전쟁과 음악'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포트워셔에서 열린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들이 음악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였고 그들의 연주는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이 과정들을 특수 촬영 등을 통해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전쟁과 음악이라는 이질적 관념을 영상으로 시각화하고 그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환경 보도 부문은 MBC장영근 기자의 '물이 밀려온다-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 연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와 미래 우리 지구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보도는 막연하게 우려와 먼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있는 일로 여겼던 문제를 이슈의 현장 한가운데서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은 머지않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며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심사평을 받았습니.

이렇게 지난 2022년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영상 기자들의 활약이 있었고 그 노력은 최종적으로 뉴스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한 해 가장 뜨거운 뉴스들 중에 영상기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문제의 중심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급박하게 변하는 현장에서 시간, 공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 현장의 영상 기록들은 훗날 역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후 환경 위기가 재생 에너지와 지역 사회 갈등 등을 다룬 좋은 작품들도 많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기자들에게 카메라는 전쟁터의 총과 칼입니다. 영상 기자들은 항상 역사의 한가운데 있음을 가슴과 머리로 새기며 어느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2022년에 뉴스 화면으로 뜨겁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 후보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한국영상기자상 수상 소감: '새로운시선' 부문>

MBC충북 뉴스데스크: UHD 영상뉴스 '미래 유산을 찾아서'

새롭게 조명하는 우리 주변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MBC충북 김병수, 신석호 (왼)

'미래 유산을 찾아서'는 주변에 소외되고 잊혀져 가지만 역사적으로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다룬 영상뉴스입니다. 시각시대에 놓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미래유산들이 관리받고 유지되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기획뿐만 아니라 연출, 촬영, 편집 단계의 색 보정, 사운드 믹싱 등 모든 과정을 영상기자가 직접했으며 총 7편을 제작했습니다.

(1편) 충주역 급수탑은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증기기관차를 위한 급수 시설입니다. 지금은 홀로 방치되어 있지만, 당시 근대 철도 산업시설에서는 필수인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방송 이후 충청북도 제1호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2편) 괴산 목도양장장은 1921년 지어져 마걸리를 양조하던 근대 산업시설입니다. 백 년의 세월 동안 3대에 걸쳐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2호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3편) 청주 내덕동 주교좌절당은 동서양 성당 건축물의 조화로운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정선적 추기경이 몸담았던 유서 깊은 성당으로 60여 년 넘은 지금 지역주민에게 평안과 안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4편) 증평 대성정미소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를 계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하며 현대식 기계를 도입한 지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도정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심사 중에 있습니다.

(5편) 괴산수력발전소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우리나라 기술력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콘크리트 댐입니다.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내·외부 구조물 등이 방출되지 못했지만 지상과 방송 최초로 섭외하여 우리나라 당시 기술력과 발전소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편)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1923년 성공회 교회의 토착화를 위해 충북 음성에 지어진 한국 성당입니다. 서양 성당건축과 전통 한옥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내부 신도들의 갈등으로 인해 성당이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방송 이후 음성군과 충청북도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철거를 막고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편) 경부선 이원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생겨난 철도역입니다. 단층으로 된 역사, 내부에 위치한 사무실, 플랫폼으로 향하는 문 등은 전통적인 기차역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신단으로서 이원역은 역사적으로 사람과 마을을 이은 매개체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래유산으로서 건축물이 가지는 장소의 상징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새로운시선 부문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작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위를 둘러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영상기자로서 기록하고 또 담아내겠습니다. 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조연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영상국장님과 김병수 선배님 그리고 영상국선배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소감: 국제, 통일보도 부문>

KBS 시사기획 창 <전쟁과 음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속 음악으로 만난 평화



KBS 이재섭, 류재현 (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대회에 출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들이 예선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마치 '음악을 통한 대립전'처럼 클래식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번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한 취재진은 음악 국가대항전 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들의 순수한 음악적 경쟁 과정을 통해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냉전 시대부터 평화의 매개 역할을 했던 벤 클라이번 콩쿠르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짚어보며 과거에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와 현재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취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임원찬, 신창용, 박진형 등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설 때 콩쿠르 피아니스트들의 혼이 담긴 연주와 그들의 경쟁을 직접 영상으로 담을 생각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여러 피아노 콩쿠르 영상, 피아노 관련 영화, 유튜브 등 참고할 만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를 보며 대중 앞에서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펼치고 싶단 생각도 했었고, 피아노를 치며 고백하는 귀여운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학적으로 정말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즐겁게 피아노 영상들을 찾아보면 중 선배가 던진 말이 저를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음악은 있는데 전쟁이 없네". 그때부터 막막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과연 어떻게 프로그램 주제의식을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참가자를 데리고 전쟁터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경쟁장에 전쟁 관련 영상을 띄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는 능담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아노 콩쿠르 영상만 주구장창 답이와 반쪽사리 기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인 연주자들에게 경연 기간 중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

심스럽고 까다로웠습니다. 콩쿠르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연 기간 동안 전쟁에 관한 질문을 안예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콩쿠르 참가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정확히 헤아릴 순 없지만, 백스페이스에서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을 가까이 마주하니 조금은 알 것 같아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매 리운드마다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연에서 주인공으로 삼은 연주자가 탈락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인터뷰할 기회 발생해도 무리하게 질문을 하기보다 친밀감을 쌓으려 노력했고 그들의 연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주자와 가까워질수록 다양하게 촬영할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포드워드 현지에서 머무는 집에 찾아가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일상까지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콩쿠르가 진행될수록 취재진도 경연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의 마음처럼 초조해졌습니다. 경연이 끝나면 모든 질문을 쏟아냈다는 다짐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허허하며 다양한 기법으로 차곡차곡 영상들을 쌓아나갔습니다.

전쟁 당사자들의 목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걸 담아내는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라는 것이 대중적인 소재가 아니었고 전쟁까지 녹여내야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전쟁 상황을 영상에 담아 피아노에 투사함으로써 전쟁과 음악이라는 이질적인 개념들을 한 장소에서 시각화했습니다. 미니언저, 고속촬영, 타임랩스, 짐벌 등 할 수 있는 영상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음표 모양의 '보케필터'입니다. 렌즈 구경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한 아주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영상기법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과유불급', '불필요한 영상기법들의 대잔치', '영상적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후반작업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담백하게 편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프로젝트 특성상 초기 기획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실제 경연에서 탈락하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미국 포드워스로 취재를 간 것은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콩쿠르 참가자들이 저희 취재진들과 함께 각본 없는 스토리를 써 내려갔던 셈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크라이나 참가자였던 드미트로 초니가 3등, 러시아 참가자였던 안나 게니쉬네가 2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원찬이 1등을 차지했고 이들의 우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에 운 좋게도 기획 의도를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으로 기적과 같은 3등을 보낸 2022년을 오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간 함께登高동락한 이재섭, 정영욱 두 선배께 감사드리며 어디선가 전쟁을 겪고 있을 모두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힌트페터 국제보도상' 성공에 기여한 공로상 수상자들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공로상을 수상한 고재대 5.18기념재단 부장, 김영미 분쟁전문PD, 전윤철 광주 MBC영상기자, 김상준 독립 PD가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프레스센터)

<한국영상기자상 수상 소감: 환경보도부문>

MBC뉴스데스크: [물이 밀려온다]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 연속보도

인도네시아에서 기록한 나의 기후위기 해방 일지



MBC 장영근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낫다. 피해는 지구 중심, 적도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마을들이 이미 바다 아래에 잠겨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물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 삶이 일상이 된 인도네시아의 기후위기 현장을 취재했다.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 물에 잠긴 마을부터 찾아갔다. 수도에서 약 400km 떨어진 '데막'이란 지역의 '베두노' 마을이었다. 현장에 도착해서 드론부터 띄웠다. 하늘로 높이 올라간 드론이 비촌 마을은 이렇저렇기 비어있었다. 높아진 바닷물 때문에 마룻바닥을 겨우 높은 수상가옥만 여러 채 보였다. 그뿐이 아니다. 삶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잠겨 농부가 보이지 않았다. 목장이 잡혀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배를 모는 어부들만 조금 보일 뿐이었다.

어부 한 명을 만났다. 이름은 이란(Iwan). 베두노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수더분한 성격을 가진 그는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는 물에 잠겨 폐교했다. 지금은 집은 도로가 물에 잠겨 배를 타야지만 오갈 수 있다.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떠났다. 마을은 그대로 적막이 일상이 됐다. 이슬람 경전 구절이 마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면 사람들이 조금 보인다. 말했다. 이런 역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다른 동네로 떠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열악한 마을의 실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배를 타고 바다로 조

금나오니 그의 집이 보였다. 바다 한가운데 텅그러니 놓여있는 집.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이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홍합, 꼬막 등 식자재는 대부분 해산물이었다. 모야농은 빗물로만 머리를 감을 수 있었다. 원래 바다보다 1-2m 정도 높은 나무 평상에 몸을 누였다. 파곤한 동료들은 금세 코를 골았다. 반면 잠기가 밝은 나는 바닥에 철썩이는 파도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만, 데막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수도는 지방과 달리 해수면 상승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왔다. '자이언트 씨 월(Giant Sea Wall)'이란 이름의 거대한 방파제를 쌓아 올린 것도 그중 하나다. 길이만 32m, 높이는 3-4m 되는 거대한 방파제였다. 우리는 방파제 일부구간을 찾았다. 해수면 상승 기후위기를 암시하는 그라피티가 방벽 배쪽이 그려져 있었다. 일부 구간은 틈 사이로 바닷물이 새어들었다. 또 다른 구간은 이런 걸 막기 위해 몇 번이고 뒤편 흔적이 보였다. 자연의 힘을 인간의 힘만으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취재는 5박 7일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경험 부족에 어설했던 순간도 있었고,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었다.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니 어는 현장의 심각성을 어떻게 담아야 시청자들이 공감해 줄지 고민했다. 특히나 환경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남 얘기 같고, 먼 미래 얘기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덜 느껴진다. 이 느낌을 즐기고 싶었다. '기후위기 직접 체험해 보기' 내가 찾은 답이었다. 바닷물에 잠겨가는 집에서 지붕과 빗물로만 씻고, 높은 방파제 위에도 기어 올라가고, 땀범벅이 되기를 선택했다. 아름답게 찍기보다 더 다가가서 담았다.

다소 거친 결과물이었지만 현장감을 담을 수 있어서 기뻐다. 물론 당장의 리포트를 이 위기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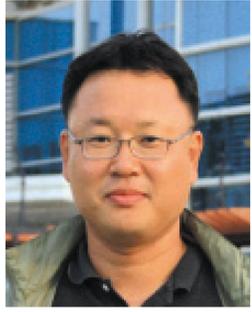
다만, 주어진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는다. 나의 기후위기 해방일지가 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 편에서 멈춰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도 다큐부문 수상소감은 6면에서 계속>

<한국영상기자상 수상 소감: 보도특집다큐부문>

KBS뉴스9: [단독]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

뜨거운 여름, 하천오염의 주범을 쫓아 끈질긴 추적



KBS춘천 임강수, 이정주 (글)

“공지천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있어요.” 취재는 갑작스러운 제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춘천 공지천은 아이들이 물장난하고, 어른들은 낚시하는 30만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는 민물고기 수천 마리가 한날한시에 폐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듣고 즉시 취재팀을 꾸려 현장에 나가 보니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도심 하천 1km 정도를 따라서 물고기가 죽어 가라앉거나 떠돌고 있었...

폐기 처리한 뒤 미흡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따라 인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폐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를 가려 환경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보도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이 사태와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우려와 질타를 표했다. 일부는 취재진의 용기와 끈기 있는 보도에 대해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오염수 유출 배수관을 폐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춘천시의 녹장 부실 대응에 경고하며 산하기관에 수질오염 대응체제 일체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도 유독물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재를 통해 밝혀낸 유독물질에 대해선 배출금지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6월 한 달 동안 벌인 끈질긴 취재의 가치를 인정해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이어 한국영상기자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취재한 조후연·김태희 기자, 바쁜 학사일정 속에도 내 일처럼 흔쾌히 취재와 실험에 응해준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진, 부족한 인력으로 데일리 뉴스를 제작하면서도 심층취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KBS 춘천중국 보도국 선후배·동료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제 36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에서 한원상 YTN 영상기자가 영상 보도가이드라인' 제정, 교육사업, '한츠메터국재보도상' 제정 노력의 공로로 영예상을 수상했다. 협회의 영예상 수어는 2018년 최기홍 KBS 영상기자 이후 두번째이다.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소감: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KBS시사기획 '창': 햇빛·바람에 멎는다

재생에너지의 명암



KBS광주 이서현

“서울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역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들을 만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어촌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고, 문 닫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에서는 소멸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이른바 재생에너지 시설만큼은 비수도권의 출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정작, 전력 소비량이 많은 서울을 비롯한 세종과 6대 광역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사람이며 문이든 모든 걸 뺏아들이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전진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햇빛·바람에 멎는다》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생계와 터전을 잃게 되는 현실을 조명하고, 농어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도심에서도 또 대기업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사다큐멘터리 제작의 경우 보통 구성작가가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가가 없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을 함께한 취재기자 선배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맛을 살리는 작가가 그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사다큐멘터리 제작 경험도 많이 없었고, 늘 데일리 영상취재만 해왔으니 작가가 없게 제작하는 일이 큰 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영상기자로써 역량을 발

전시킬 기회라고 다짐했습니다. 취재 계획에 맞게 영상구성을 사전에 만들며 제작에 들어갔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촬영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을지 사전에 답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얻지 못하면 보충촬영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영상이 프로그램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농어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드문 영상이었습니다. 드넓은 폐역전의 자리를 수십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고 있거나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은 해상풍력 발전기, 또 태양광 발전소 공사장에 둘러싸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등 농어촌을 파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짐작해가는 모습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간척지며 염전, 해상풍력 공사가 한창인 바닷가를 촬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뒤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일터가 사라진 농어촌에 누가 들어와 살겠고, 나이 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마을에는 태양광 패널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거라고”. 지금처럼 사업자 중심의 입지 선정과 무분별한 허가 속에 농어촌을 파괴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지방소멸을 더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라는 현실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지, 농어촌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등학교이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서 이유로 무관심합니다. 농어촌의 공존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하는데 한국영상기자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데일리 영상취재와 편집으로 헛바퀴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상이 나를 더 발로 뛰게 하는 모멘텀이 되어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집 제작으로 내가 빠진 빈자리를 완벽히 메워 준 광주 보도국 영상기자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소감: 멀티보도부문>

KNN풍경멘터리: “위대한 유산 100경”

코로나19의 시름 잊게 한 자연문화유산 영상답사기



KNN 전재현

학창 시절부터 이제까지 상하고는 천하지 않았는데, 위대한 유산 100경이라는 프로그램과 만나서 이렇게 큰상을 받게 돼서, 맞지 않는 웃음이고 있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작년 5월에 100편의 마지막을 제작한지, 꽤 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생

각지도 못한 수상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상 소감이라면 보통 고마운 사람을 표현하는데, 저도 그림 몇 분 언급하겠습니다. 일단은 100경의 눈에 발을 담고 해 주시고, 100경의 뼈대를 만드신, 국주호 선배님들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매주 8분이라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아이들 선정부터 촬영, 편집, 종편까지 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날씨나 현장 사정 등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프로그램에 살포시 털어주시고 고마운 선배님들, 100편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100경에 글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준 박선진 작가님께도 고마움을 남깁니다.

정말 섬의 여왕과 같이 일해서 언제나 후방이 든든했고, 그림의 부족함을 글로써 채워준 박 작가님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던 직장에서 신입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조연출 김민석, 언제, 어디서든 현장에 서 늘 저를 지켜주고, 타임랩스 만든다고 수고한 우리 조연출이 없었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갖은 출장으로 가정을 자주 비운 저를 대신에 덩치 큰 아들 돌 잘 챙기며, 가정을 지켜준 든든한 나의 아내 김금진에게 고마움을 남기고 싶습니다.

2022년 입사하여, 400A 카메라를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 촬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촬영 후에도 할 일이 많아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예전엔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모든 촬영이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보도촬영만 해도 드론에 작은 액션캠하는 정도는 챙겨 갈 때가 많은데, 미니 다리의 포맷으로 촬영되는 100경의 경우, DSLR 두 대와 렌즈 5개, 드론, 짐벌, 슬라이드, 가깝게 미니 지미캠까지, 인원이 되면, 오토모션 포함 3명 안 되면, 2명에서 운용하기에는 벅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원 촬영 당시 통영 시내에서 궁수까지 불러서, 활 쏘는 모습을 촬영한 메모리가 오류로 영상 전체를 날렸을 때는 정말 땀방울이 와서 컴퓨터 앞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매산에서 역세를 촬영할 때는 신나게 드론을 날렸는데, 들어와서 보니 HD포맷이라서, 조용히 황매산 정상에 홀로 다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촬영하고 나서도 몇 천장 되는 로우파일로 타임랩스 만들어서, 촬영 원본 백업도 해야지, 서울 녹음실에 편집 본을 보내고, 음편도 맡기고, 종편도 해야 하는데, 컴퓨터는 느려서 중간중간에 멈추고, 다양한 제약들이 조금만 편집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지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가서 이렇게 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군대’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하기 싫은 그런... 하지만, 군대 얘기가 재미있듯이 저 또한 100경의 추억을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100경을 촬영했던 장소를 짐사방과 한 번씩 다녀옵니다. 계절에 잘 맞춰서 가면, 백경에 나온 장소들은 정말 멋진 장소들입니다. 만약에 딱 한 군대를 추천하라고 하신다면, 5월의 남해 고사리밭으로 꼭 가지길 추천합니다. 한 번도 못 본 광경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다른 곳들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촬영하는 저로서는 대부분 가봤던 곳이거나, 소개가 많이 되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고사리밭은 처음 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1인 시스템의 제작 환경을 후배들에게 한 번쯤은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100편까지 아니지만, 사실 10년 넘게 보도영상만 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한번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체제도 찾아왔습니다. 15년쯤 일하니, 한 해 동안 들어가는 보도의 패턴도 보이게 되고, 웬지 모르게 의욕 부족이 왔을 때, 5년 정도 제작카메라감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드라마도 촬영하고, 지미집도 배우고, 소프트웨어에도 참여하면서, 정신무장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영상기자로 돌아오라고 할 때쯤부터 100경을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에서 한 번쯤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시스템은 영상기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일단, 영상기자는 촬영과 편집이 원활하게 되니, 1인 시스템의 50% 얻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 정산에 음편, 종편, 자막 폰트까지 회사 들어오고, 처음 하는 업무들이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지만, 단언컨대 즐거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 주변만을 철학하기 위한 1인 시스템만 아니라면...

수상 소식을 들은 회사 선배님의 한마디가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협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네가 열심히 한 거라고.” 초심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Panasonic 4K Professional Camcorder HC-X2/X20 advertisement. Features include 4K 60p 10bit, 1.0-inch sensor, 20x optical zoom, and 24.5mm wide lens. Includes a large image of the camcorder and a smaller image of a person's face.

<한국영상기자상 수상 소감: 보도특집다큐부문>

MBC특집다큐멘터리: 여음(餘音)아직, 남겨진 소리

영상으로 담아낸 정선아리랑속, 사람과 삶의 이야기



MBC강원영동 김창조

2021년 12월 겨울부터 시작한 다큐가 한해를 지나 2월이라는. 무작정 떠난 여행처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도 내리지 않던 눈은 2월에 다다라서야 내리기 시작했고 새벽바람 맞으며 찾아간 할백산의 설경이 우리를 반겨주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출을 해 본 적도 없는 나로서는 일단 어른들을 설의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27년을 취재를 다니던 곳들인데 막상 작품을 맡고 보니 다른 동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접점산중에 사시는 어르신들, 일반인, 소리를 하실 줄 아시는 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선군 담당자는 이런 소리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좋은 취재를 할 거라면서 CD 한 장을 주었습니다. 몇 번을 들어봐도 예전 우리네 할머니들이 하시던 소리였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 그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갔을 때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신이 높고 땅이 험해 돌밭을 호미질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과 새소리뿐이던 그 골짜기에서 정선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사연을 담아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란 딸이 할머니가, 아들이 할아버지가 된 시절에서, 기록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전해오던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려 했습니다. 성우의 내레이션 없이 오로지 자연의 소리, 서민들의 아리랑 그리고 인터뷰만으로 구성된 다큐를 제작하려고 했기에 우리는 오롯이 소리에 집중해 제작했습니다. 일반취재업무를 병행하면서 흥얼거려듯 소리하는 분을 찾아 헤집고 다니길 꼬박 1년, 정선사람들이 노래하는 아리랑소리와 사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사계절 정선의 자연이 지닌 아름다운 풍광들을 고화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대금 연주, 전통무용, 다양한 촬영 기법 등을 통해 정선 아리랑뿐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의 모습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 어렵던 시절, 각자가 가진 삶, 그리고, 가슴속에 애써 감추고 싶은 애기를, 그 애기들을 소리로서 표현하는 게 전부인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인생이 한 편의 다큐로 기록되었습니다. PD, 취재기자의 전유물인 다큐를 이렇게 한 것은 제작 카메라 감독인 홍두희 국장과 함께 제작을 한 것이라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도, 제작영상을 하는 두 사람이 함께 다큐를 제작하는 것은 많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정선의 이 구비, 저 구비를 돌고 돌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과 소리들을 더 충실히 기록하고자 한 노력들이 이런 결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상을 같이 받지는 못하지만 모든 영광을 흥 국장님께 돌리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주·대전충남지역 영상보도, 작품이 되고 역사가 된다.

제주카메라기자회·대전충남영상기자회 2022보도영상전 개최

지난해 제주와 대전·충남지역의 영상 기자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취재, 보도한 영상들 중 한 해를 대표하는 영상을 시민들에게 작품으로 공개하는 보도영상전시회가 잇달아 열렸다. 제주카메라기자회 회장 MBC제주 강흥주는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KBS제주 도민전시실에서 제21회 '2022 보도영상전'을 개최했다.



이날 보도영상전은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제주방송, YTN제주지국, MBN제주지국, JTBC제주지국, 연합뉴스TV제주지국 등 제주카메라기자회 소속 영상기자들이 지난 1년간 취재, 보도한 작품들 중 제주도의 1년을 기념할 영상보도를 선정해 작품으로 전시했다. 강흥주 제주카메라기자회장은 이날 개막행사에서 "제주보도영상전시회는 올해로 제주카메라기자회 21주년을 맞이하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보도영상전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올해 다시 오프라인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보도영상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말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22지방선거 ▲서귀포 대형 선박 화재와 사건·사고 ▲4·3 수형인 명예 회복과 역사적인 첫 보상금 지급 ▲제주의 자연 등 4가지 테마를 다룬 영상보도들을 전시작품으로 선정해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했다. 1월 9일 열린 개막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 등 도내 정관계 인사, 각 방송사 대표,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등 3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해 함께 축하해 주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카메라 기자 선정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선거구)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과 SBS, YTN, MBN, JTBC, 연합뉴스TV 등 대전충남지역 회원사가 속한 대전·충남 영상기자회(회장 대전MBC 김훈)도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대전 시청 전시실 1층에서 <제1회 보도영상전>을 개최했다. 이번 보도영상전은 지난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보도영상전이다. 이번 전시회는 ▲치열했던 지방선거 ▲팬데믹19 등 2022년 한 해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분야의 지역 주요 이슈, ▲1960년 4.19혁명의 시발점이 된 '3.8의거'를 재조명한 '그 봄을 기억하다' 등의 문화역사유산을 다룬 영상보도들이 전시되어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세종·충남 영상기자회 김훈 회장은 2월 23일 개막행사의 인사말에서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영상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상기자들이 한 해 기록한 영상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지역 영상문화의 발전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주아 kwja6476@gmail.com

<연장에서>

'세계적 보편성' 인정받은 '세계의 지역성'... 'ATF2022'와 다큐멘터리 '화엄(華嚴)'

지난 2021년 한국영상기자상 멀티보도부문 수상작 인동MBC 임유주 기자의 '화엄'이 대만Daii TV에 방송이 확정되었다. 또한, 태국, 이스라엘, 남아공에서도 수입의향서가 제출되어 '화엄'의 해외방송가능성도 커졌다. 인동MBC다큐멘터리 '화엄'의 해외진출은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TF(아시아TV포럼)'의 콘텐츠마켓에 참가해 이룬 쾌거이다. 영상기자들의 다양한 콘텐츠제작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요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촬영, 연출한 인동MBC 임유주 영상기자의 ATF도전기와 프로그램 판매의 성과는 많은 회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임유주 회원의 ATF 참가와 해외 프로그램판매의 경험들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편집자)



인동MBC 임유주기자

다른 나라에서 판매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제작된 이질성과 그 속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동질성이 동시에 작용되고 있다. 다른 문화권이 주는 이질성은 이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확보되었다. 따라서 ATF에서의 가장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질성이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는 특정 콘텐츠가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역을 넘어서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이 시장에서는 각 콘텐츠 제작자들의 고민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고민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ATF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이 속에서 작용되고 있는 글로벌리즘(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이다. 각 나라에서 TV콘텐츠 제작자는 그 지역, 혹은 그 나라가 가진 지역성에 집중한다. 단 며칠의 기간, 어느 특정 시기에 집중하기도 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의 이야기에 맞추어 진 작품에 대한 바이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태국, 이스라엘, 남아공 바이어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심은 1500년 전 한국의 '의상'이라든가 판매했고, 국내 바이어들은 외국에서 제작된 TV콘텐츠를 한국에서 방송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형적인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의 문법은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그 나라가 아닌

서 이곳에서 최고의 지역성은 최고의 세계성이 되었다. 1500년 전 한류를 이끈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세계 시장이 요청하는 콘텐츠가 되었다. 당나라 출신 유학파들이 불교의 의상과 유교의 최치원, 도교의 김가기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나 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지금 동아시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놓았다. 그들은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화엄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이것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이들을 통해 어떠한 일에도 걸림이 없는 하나로 통하는 세계를 꿈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작년엔 제작된 '화엄(華嚴)' 다큐멘터리가 주목한 이야기이다.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를 넘어, 다큐멘터리 '화엄'은 대만Daii TV에 방송이 확정되었다. 더불어 태국, 이스라엘, 남아공에서도 수입의향서를 받았다. 이제 화엄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의 이야기가 되었다. 더불어 영상기자가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을 진행한 다큐멘터리가 해외로 수출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와 지역사의 어쩔 수 없는 제작 환경이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사례가 되어 세계와 함께 하게 된 것이다. 화엄의 세계화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갖는 세계적 가치와 한국의 영상기자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게 된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TF 2022' 행사에 설치된 한국콘텐츠 전시장과아시아TV포럼 장면.

나준영 MBC영상기자, 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선출

지난 1월 30일 전국운영위원투표 통해, 27대 회장이어 재선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1월 30일 전국운영위원투표를 진행해, 앞으로 2년간 한국영상기자협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나준영 MBC 기자를 선출했다. 28대 영상기자협회장후보로 단독 출마한 나준영은 이날 투표에서, 재직위원 48명 중 46명이 투표해 (투표율 95.8%), 찬성 44표(95.7%), 반대 2표(2.15%), 기권 2표(2.15%)를 받아, 새로운 회장에 당선됐다. 27대 한국영상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해 온 나준영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나준영 당선자는 27대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회원들의 온

오프라인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온택트(ONTACT)체제를 강화하고, 미디어취재환경변화에 맞춰 <풀(POLL), 포토라인 취재준칙> 개정, 새로운 뉴스현장이슈에 맞춘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교육추진, 영상기자단체 국제교류 및 남북영상기자교류사업 추진, '한스 페터국제보도상' 관련 행사에 회원 참여 확대 및 사업 분야 확장, 영상기자의 미디어교육 참여확성을 위한 회원교육과 공공교육기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나준영 당선자는 2023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단순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영상기자는 되지 않을 것...한걸음 물러서 진실 담겠다.”

- *나준영(제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약력***
- 1995년 MBC 보도국영상기자 입사
 - MBC 영상취재팀, '카메라출동', '시사매거진2580' 영상취재 담당
 - 청와대, 국회, 서울시청 출입기자
 - MBC 뉴스콘텐츠취재1부장(2019), 뉴스콘텐츠편집부장(2020)
 - 한국영상기자협회 대외협력국장, 편집장(2003~4)
 -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서울본부 보도부본부 부위원장(2009~2010)
 -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위원 및 저자 참여(2018~2020)
 - 제27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2021.3.1~ 2022.2.28.)

“영상기자일은 소통에서 시작... 많은 사람과 소통 잘 하는 기자 될 것”

신입회원인사말 / JTBC 이현일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여전히 영상기자로써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는 데에 급급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앵글로,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매일 고민했지만, 날마다 닦치는 새로운 현장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해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은 초여름 날씨를 취재하는 일정이었는데, 더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머릿속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온몸에 흐르는 땀조차 느끼지 못하고 발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총을 맞게 되어 갑자기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취재기자는 “이제 찍을 만큼 찍지 않았나? 이동할까?”라고 했고, 저는 모호한 마음이었지만 저보다 선배가 하는 말이었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복귀하여 다른 선배에게 들은 말은 “이 그림이 충분할까?”였습니다. 시청자에게 여름을 전달할 그림이 부족했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것을 인지했으면서도 함께 일하는 취재자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제게 “기본적인 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이후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왜인

신입회원인사말 / JTBC 유연경

새봄이 열렸다. 4월이면 영상기자로 입사한 지 1년이 된다. 벌써 몇몇 현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반면에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현장이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난 거라 여자 선배가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에 올라온 취재기자의 의뢰다. 나는 흔히 생각하는 영상기자가 갖고 있으면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160cm가 겨우 넘는 키에, 그렇다고, 특출나게 힘이 세거나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다. 나에게서 영상기자로써의 장점을 찾아보려 애쓰던 중,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성’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뿐이기에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은 듯 안도하며 일정을 나갔다.

신당역 고객안전실 앞에는 취재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었고 화장실 앞에서는 영상기자들이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정말 화장실 안에서 촬영해도 된대? 촬영 허가를 받았다는 취재기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여성 영상기자로써 가능한 촬영 조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좋을지, 그림을 잘 찍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한 채 REC를 눌렀다.

다음날도 신당역으로 일정을 나갔다. 하루 만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었고 많은 시민이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추모했다.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길 기다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화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추모공간 앞에 계속 서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눈물 장면을 찍으려다가도 정치인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카메라를 뺀고 웅성거리는 쪽으로 달려갔다. 정신당은 시간을 보내고 선배와 교대할 한 뒤에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스케치를 위해 이동했다. 화장실 앞과는 다르게 취재진도 정치인도 없이 조용히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만 존재했다.

한걸음 물러서야 보인다는 말이 이겨구나. 이틀간 내가 가졌던 안도의 감정이 부끄러워지면서 자괴감이 몰려왔다. 영상기자가 되기 전 나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추모했을 것이고 나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림을 건넸다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건의 본질에 분노하고 끔찍해했을 것이다.



“단순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영상기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던 영상기자 지망생이었던 나는 입사 5개월 만에 정확히 그 반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성별과 신체적 특성을 타하며 스스로를 옥죄인 것 또한 나 자신이었다. 내가 현장에서 찍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분명 뉴스에 필요한 그림이고 그것들을 촬영하기 위해 영상기자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작 1년 차도 될지 않은 나는 벌써 잃어버렸다. 정의 내리기 힘든 이 마음을 깨닫고 내적으로 단단한 영상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2023년을 보내고 싶다.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장 실수와 고민 통해 더 좋은 영상 보여줄 것”

신입회원인사말 / JTBC 김대호

아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장 실수와 고민 통해 더 좋은 영상 보여줄 것>를 접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의 사진을 보고 포토저널리즘에 매료됐다. 중고 똑딱이 카메라를 사서 무작정 사진을 찍었다. 구도, 노출, 심도 등의 기본 개념도 몰랐지만 찰나의 순간을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일이 즐거웠다.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니던 회사를 나와 언론 대학원에 진학했다. 소위 언론 고시를 준비하고 다양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뉴스 영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다. 보도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뤄지지만, 뉴스 영상은 프레임들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보도 사진엔 소리가 기록되지 않지만, 오디오가 없는 뉴스 영상은 죽은 영상이다. 여기에 미장센뿐만 아니라 몽타주까지 고려해야 한다. 뉴스 영상의 이런 요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영상기자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됐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마침내 JTBC에 입사해 첫 걸음을 뗐다.

‘역사의 현장을 내 손으로 기록하겠다’는 꿈을 품고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장은 내게 아직 버겁다. 취재 나가기 전 선배들의 영상과 타사 뉴스를 찾아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루틴이 됐지만, 현장은 단 한 번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거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카메라 라부터 들이밀며 임기응변으로 취재하기도 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카메라를 내 몸처럼 다루고 싶지만 아직 부파인더 속 흑백의 세상이 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파인더에만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오디오 레벨과 샷 사이즈를 생각하다 정작 내용을 놓칠 때도 있다. 찍는 행위 자체에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어느새 기계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뉴스 제작자 입장에서 고민일 뿐이다. 뉴스 수용자인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살펴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한없이 부끄럽다.

이런 고민 탓에 카메라를 처음 접했을 때의 설렘은 줄어들고 긴장감과 부담감이 커졌다. 하지만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입 영상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한다. 지금 많이 틀리고 고민해야 시청자에게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줄기를 높고 굵게 올리는 것보다 뿌리를 더 많이, 더 깊게 뻗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실수와 고민이 튼튼한 뿌리가 돼 영상과 타사 뉴스를 찾아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루틴이 됐지만, 현장은 단 한 번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거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카메라 라부터 들이밀며 임기응변으로 취재하기도 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카메라를 내 몸처럼 다루고 싶지만 아직 부파인더 속 흑백의 세상이 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파인더에만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오디오 레벨과 샷 사이즈를 생각하다 정작 내용을

MBC, 안형준 신임 사장...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내 형평인사, 지역MBC, 중소제작자와의 협력과 상생 공약

사장선임 직후,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등 ‘잡음’ 안 사장 ‘후배에게 명의 빌려줘’ 해명...새내외, 방문진 등에 엄정 조사 촉구

MBC가 안형준 후보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 선임 과정을 시민평가단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안 사장에 대한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MBC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방문진 최종 면접에서 뽑힌 안 후보의 선임안을 가결했다.

안 사장은 앞서 21일 열린 최종 면접에서 ▲보도 책임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공을 막고 ▲조대형 드라마 제작을 위해 콘텐츠 펀드 투자와 MBC 중소 제작자 상생 제작 모델을 추진하는 한편 ▲경력사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사와 공정한 대우 ▲지역MBC 송출 시스템 통합 등을 약속했다.

1994년 YTN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안 신임 사장은 2001년 MBC로 자리를 옮긴 경력 기자다. 2018년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1년부터 최근 사장 후보 지원 전까지 메가MBC추진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 올랐던 허태정 후보와 MBC 제3노조는 ‘최종 면접 전에 안 후보가 과거 한 벤처 기업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도 방문진이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했다.’며 선임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지난 27일 사원 공지를 통해 ‘후배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지만 금전적 이득

2023년 협회원 인사동향

[KBS] 2022.11.07 - 최연승 - 보도영상국장 승진 2023.01.01 - 서원철 - 입사 2023.01.01 - 강현희 - 입사 2023.01.01 - 정준희 - 입사 2023.01.01 - 최현진 - 영남권 입사 2023.01.01 - 한정희 - 호남계 주권 입사 2023.01.01 - 안성복 - 충청강원권 입사 2023.03.31 - 배정철 - 국장 - 퇴직	[OBS] 2022.11.30 - 정준필 - 국장 - 퇴직 2023.01.01 - 최규남 - 영상제작센터장 승진	[부산MBC] 2022.12.26 - 박현진 - 입사 2023.02.01 - 이상욱 - 영상제작팀장 승진	[포항MBC] 2023.01.31 - 유명중 - 국장 - 퇴직
---	---	---	--

[SBS]
2023.01.31 - 김성일 - 부장 - 퇴직, 안석년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행 · 편집인 나준영
편집위원 김용민, 김재욱, 김준모, 김현기, 김현석, 김형수, 박태범, 양재혁, 유충현, 윤형, 이지호, 이한범, 정영근, 전상범, 정중배, 현세진, 황중원

취재기자 안경숙, 행정 오주아, 이경선, 제작 | 미디어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원,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엑스포 참가하러 왔습니다.

I'm here to participate in the EXPO.



대한민국과 세계박람회 맨 처음 인연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조선관' 설치였습니다. 138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엑스포 사랑.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지지해주세요.

- 2023.4.3~7 ○ BIE 평가단 방문 (인프라 및 유치열기 등 평가)
 - 2023.6월 ○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 2023.11월 ○ 개최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 올해 2023년은 부산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